

전북정보화실무능력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이수진 교사 지도자 부문 ‘장관상’

〈봉동초동〉

전북도민일보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달 17일 공동 개최한 ‘제7회 2010년 전라북도 정보화 실무능력 경진대회’의 영광의 수상자들이 확정, 발표됐다.

16일 한국생산성본부 자책 전북지역센터(센터장 김종구)에 따르면 개인부문(초·중·고·일반·지도자부)과 국제컴퓨터활용부문(대학·일반부), OA MASTER부문, GTQ 포토샵 부문, ERP 정보관리 부문, 단체부문, 우수지도자부문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올해 입상자중에서 이수진 교사(아이토피아·봉동초등학교)가 지도자 부문에서 전국 대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업을 토하며 도내 출전자들의 정보화 능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과시했다.

한국생산성본부와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생산성본부 정보기술자격 KPC 자격전북지역센터가 주관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전북제신청, 한국교육방송공사, 전주문화방송,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교육사령연구회, 전라북도컴퓨터학원연합회 등 15개 기관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과 인재를 발굴·양성에 첨단 과학분야의 기초가 될 정보통신 교육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및 일반인 등 총 815명이 참가, 실력을 겨뤄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북 최고의 정보화 경진대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한국생산성본부 ITQ전북지역센터(http://www.itq-jeonju.or.kr, 이메일 jbr-itq@hanmail.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 전라북도 정보화 실무능력

경진대회’ 시상식은 12월로 예정돼 있으며, 추후 고지할 계획이다.

주요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개인부문

△ 대상= 양세중(전주기린초4, 전북교육감상), 정혜인(남원한빛중3, 전북교육감상), 장은지(군산여상2, 전북교육감상), 이수진(지도자부, 아이토피아·봉동초, 지식경제부장관상), 김지혁(일반, 군산성심직업학교, 전북도지사상), 임보라(일반, 대학교·전주덕진초, 전북도민일보사장

상), 김연하(일반, 웅진스쿨·군산산북초, 전북제신청장상)

◇ 국제컴퓨터활용부문 △대상= 박예진(전북대1, 전북대학교총장상)

◇ OA MASTER부문 △대상= 김유나(이리동초6, 한국생산성본부회장상), 박영연(전주서문초6, 전북도민일보사장상)

◇ GTQ 포토샵 부문 △대상= 이태삼(남원한빛중2, 한국생산성본부회장상)

◇ ERP 정보관리 부문 △대상= 채민석(전북대4, 원광대학교총장상)

“학생들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최선”



이수진 교사

“컴퓨터가 좋아서 시작한 공부

가 이렇게 좋은 상으로 돌아오네요. 너무 기쁘요.”

지난달 실시한 제7회 2010 전라북도

정보화실무능력경진대회 겸 제4회

iTOP경진대회에서 정보기술분야에 출전해 최고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

을 수상한 이수진(29·여·봉동초 컴퓨터담당) 교사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만도 20개가 넘는 컴퓨터 박사(?)다.

평소 컴퓨터를 좋아했다는 이 교사는 “고등학교를 전산학과로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컴퓨터와의 인연을 맺었어요. 항상 재미있게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했던 마음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 교사는 6년 전부터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를 맡고 있다. “아이들에게 제가 가진 능력을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해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보람은 너무 즐겁

고 특히 학생들이 자격증을 손에 쥐는 모습은 감격스러운 정도예요”라면서 “전북 지역의 아이들이 미래의 중심 매개체의 하나인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는 바람도 나타냈다.

이 교사는 “컴퓨터 활용 능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갈 필수적인 재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내년에는 봉동초 학생들이 수상자 명단에 많이 들도록 해야겠다”고 웃음을 지었다.

김민수기자 leo@

이스타항공, 中企인 전용좌석 지정

중기중앙회와 협력협약

이스타항공이 우리나라 경제 기둥인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이스타항공그룹 회장, 최중구 이스타항공그룹 경영지원실장, 박수전 이스타항공 영업본부장 등이 중기기업중앙회를 찾아 송재희 상근부회장, 성낙중 경영기획본부장, 강성근 전략경영실장, 인터비즈투어 정경옥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기업 비즈니스활동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각 운항노선에서 출발 항공기마다 10개의 좌석을 ‘중기기업인 전용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특별 할인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과

의 이번 제휴로 인해 중소기업인들간의 교류확대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 전용좌석은 국내의 비즈니스 전문여행사인 ㈜인터비즈투어(1157-1239)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기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회원사들에 이스타항공 항공편 우선 이용을 장려하고, 중소기업뉴스 등을 통해 이스타항공 이용을 알리기로 했다.

이날 이스타항공 박수전 영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출장 및 여행 편의제공을 통해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국제선 정기운항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leo@



이스타항공은 16일 중기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비즈니스활동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스타항공 제공

도내 쌀 생산량 13% 감소

69만1천여톤 잠정집계… 가격은 제자리 기현상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이 69만1천여톤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만6천793t, 13% 감소한 수량이다. 도는 이에 따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재값 반기와 소비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16일 전북도는 도내 벼 재배지역 386곳의 표본구역을 대상으로 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10a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576kg으로 지난해에 비해 61kg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9만7천850t에 비해 13.4% 적은 69만1천57t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감소 원인으로는 재배면적 감소와 생육초기 저온·잦은 강우 등이 주요

인으로 꼽혔다.

당국의 예상 수확량 발표는 현장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익산과 김제지역 농협 RPC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작년보다 20~30% 정도 감수했다고 한다”면서 “실제 RPC에 가져오는 물량도 크게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쌀 생산량이 줄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재의 수확기 쌀값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이다.

현재 쌀값은 한달째 80kg 한 가마당 13만1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확 전 쌀값에 비해 약 8% 반등을 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농가의 움직임은 쌀값 오름세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여유가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내년 7·8·9월 단정기에 낼 목적으로 벼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속단키는 어렵지만 쌀값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쌀값은 생산량 감소에도 지난해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어 농가에서는 쌀값 유지뿐 아니라 ‘저값’을 기대하고 있으나 당국의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게 현실이다.

도는 고품질쌀 평가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평가에 힘을 쏟고 있고 수출확대, 택배비·포장재 지원, 소비촉진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소인원기자 issa@

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주시 일원을 공동유대권으로 확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금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형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김원수기자 kimws@

도내 결산법인 영업실적 감소

전북지역 12월 결산법인 중 비교가 능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3분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은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한 반면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북지역 12월 결산법인 2010년 3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천52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0%가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210억 원을 기록, 전년도 순이익 393억원에 비해 적자로 전환돼 매출액,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코스닥증권시장은 누적 매출액이 8천299억원으로 전년같은기간 7천97억원에 비해 16.94%가 증가했으며, 순이익 역시 799억원으로 2.07%가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 대상기업 5개사의 재무상태는 부채비율의 경우 216.19%로 지난해 말 대비 34.49%가 증가한 가운데 3사가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반면, 2사는 적자를 보였다. 코스닥증권시장 대상기업 7개사의 부채비율은 61.49%로 33.39%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수기자 kimws@



이주여성 시낭송·전통의상발표회 이주여성 시낭송 및 다문화전통의상발표회가 16일 아름다운컨벤션홀에서 열린 가운데 전통의상을 입고 시낭송에 참가한 12명의 참가자가 인사를 하고 있다. 장태영기자 mode70@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2.5%로 결정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 주요 국가의 환율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된 가운데 최근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준금리는 지난 7월 0.25%p 인상된 뒤 석 달 연속 동결된 바 있다. 이번 가운데 한은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역시 물가 상승 압력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 급등했고, 소비자 물가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와 수입물가도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은 김중수 총재도 올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높은 3%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대로 두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더욱 커질 것인 만큼, 물가를 적절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앞으로 채소류 가격의 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나 경기 상승이 이어지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하락폭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물론 최근 환율 불안이 어느 정도 가뻤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 주요 국가들의 환율 갈등이 좀 누그러졌고, 신흥국의 경우 자본 유출입을 규제할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일단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등 경제전반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아직은 국내의 경제의 성장 경로가 명확치 못한 만큼,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새만금산단 1공구 2차 매립, 적격심사 1순위 한동건설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고 논란을 빚어왔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1공구 2차 매립공사 입찰에서 단독으로 참여한 한동건설(주)이 적격심사 1순위에 올라 낙찰이 유력시 되고 있다.

16일 실시한 이번 입찰에서 한동건설은 투찰금액 235억8천610만원을 써내 대우조선해양건설(주)과 에스케이건설(주)을 제치고 1순위로 선정됐다. 이날 함께 실시된 한국농어촌공

사 부안지사 수요 삼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1억771만6천원을 써낸 (유)동현건설(대표 황귀현)에 낙찰됐으며, 동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18억2천364만9천원으로 투찰한 성일건설(주) (대표 김종득)로 결정됐다.

또, 군산지사 수요 주곡지구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 10억6천785만6천500만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유)한백건설(대표 소희영)이 주인공이 됐다.

김원수기자 kimws@

인문사회계열 학생

취업기술교육 실시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을 위한 기술교육이 실시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졸업자에게 취업진로 변경의 기회를 제공기로 하고 총 5억원을 투입해 특수용접, 품질관리 등의 기술교육을 한다.

5개 과정 120명의 인문계고 및 인문, 사회, 예능 대학졸업자를 선발, 교육을 받게된다.

장정철기자 jang@

퀴즈로 배우는 경제상식

새희망홀씨 대출

지난 8일 출시된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한 시중은행은 대출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60억원이 넘는 대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고 각 은행의 일선 영업점 창구에는 관련 상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에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희망홀씨대출을 개선하여 내놓은 금융상품이다. 올해 7월 제2금융권에서 ‘햇살론’이 출시되며 기존의 희망홀씨대출이 경쟁력을 잃게 되자 대출 대상을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위의 대출 자격에 부합한다면 새희망홀씨 대출을 통해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또는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라면 최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에는 1%p까지 금리감면의 혜택도 제공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연체자나 세금, 과태료 체납자 등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금리는



안동준 조사역 〈한은 전북본부〉

은행별로 자체 신용평가 결과와 대출위험도, 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현재 6%대에서 14% 가까이 이르기까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출상품들을 꼼꼼히 비교한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새희망홀씨 대출을 다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이나 미소금융대출과 비교해보면, 새희망홀씨 대출(은행권)과 햇살론(농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인 반면 미소금융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비영리재단(미소금융재단)에서 지원하는 소액대출(Micro Credit)이라는 차이가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과 햇살론이 금융회사 자금을 대출재원으로 이용하는 데 반해 미소금융대출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외 기부금, 휴면예금 등을 활용한다. 이로 인해 금리도 새희망홀씨 대출이나 햇살론은 자금조달원가에 가산금리를 더해 높게는 10% 중반대에서 결정되는 반면, 미소금융대출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낮은 금리(4.5% 이내)를 적용한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평소에 잘 알아두면 대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퀴즈〉
기존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대출이 제2금융권의 ‘햇살론’ 출시에 따라 경쟁력을 잃게 되자 은행권에서 대출 대상을 확대하여 새로이 출시한 대출상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 새희망홀씨 대출 ② 새희망김씨 대출
□ (지난 주 정답 및 당첨자)

정답 : ① 그루폰
당첨자 : 양지한 님(장수군 교촌리), 정은경 님(정읍시 용산동)
■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메일(jeonbuk@bok.or.kr)로 정답,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입하여 보내주시시오. 정답자중 2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당첨자는 다음 주 수요일 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